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예를 들어 '그가 사과를 깎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②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④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⑤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맥에 따라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②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③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④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⑤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3.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 읽은 글과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몇 개 사서 집에 돌아온 그는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 이 글에서 '배'와 '다리'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 볼까요?

학 생 : ⓐ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근처면 과일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그런데 ⓓ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 '배'가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 '다리'는 바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다리를 베고 자던'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요.

① ⓐ: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② ⓑ: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③ ⓒ: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④ ⓓ: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들과 연관 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이겠군.
⑤ ⓔ: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다리'의 의미를 신체 부위로 확정했던 것이겠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A]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② ⓑ: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③ ⓒ: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④ ⓓ: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⑤ ⓔ: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 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 : 1 : 3이다. Ⓐ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 몰 : 원자 또는 분자 6.02×10^{23}개.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③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④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1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
② ㉡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③ ㉡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④ ㉠은 ㉡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⑤ ㉠은 ㉡과 달리,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12. 윗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되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이 최종 물질로 상당량 생성되었다.

① Ⓐ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②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③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④ Ⓑ는 Ⓐ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겠군.
⑤ Ⓑ에서는 Ⓐ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단축(短縮)할
② ⓑ : 제작(製作)하며
③ ⓒ : 활용(活用)되는
④ ⓓ : 습득(拾得)되는데
⑤ ⓔ : 성행(盛行)하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 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14.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②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③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④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⑤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15.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②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③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④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 낸 허구이다.
⑤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ㅁ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ㄴ.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ㄷ.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ㅁ.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①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② 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③ ㄷ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④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⑤ ㅁ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7.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 의지는 없는 인공 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AI-TCS)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 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플로리디 :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학생 : 선생님께서는 [㉮] 보시는군요.

① AI-TCS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②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③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④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
⑤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 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 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지요?"
"예, 예, 저어……."
"여긴 은행이오,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오?"
"저금을 조금두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A]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백 원짜리 지폐 다섯 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 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이백 원 혹은 삼백 원 또 어떤 날은 오백 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엘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게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루……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기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갓다한다. 장손이장가갓다. 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낫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 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처서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이범선, 「표구된 휴지」 -

18.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②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③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④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⑤ '화가'는 표구한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1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20.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②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③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④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⑤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① ⓐ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② ⓑ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를 다시 이어 간 것은,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③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④ ⓐ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⑤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A]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론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홑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솨— 솨—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이태준, 「해촌 일지」 -

* 모새 : 가늘고 고운 모래.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② ⓑ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③ ⓐ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④ ⓐ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⑤ ⓐ와 ⓑ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솔'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② (나)는 '솔'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까?"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케든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의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 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대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곡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대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은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지라.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윽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름을 듣고 대희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쭈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심합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곡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곡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곡 용왕이 ㉤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② ㉡: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③ ㉢: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④ ㉣: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⑤ ㉤: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곡 용왕'의 반응이며, '동곡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② ⓑ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③ ⓒ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④ ⓓ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⑤ ⓔ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9.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옥전」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략을 꾸몄다. 그 후 ㉲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A]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B]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C]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둥치들이 [D]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E]
아 **하늘의 기둥**들!

-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② [B] :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③ [C] :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④ [D] :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⑤ [E] :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②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③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⑤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④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용언의 활용형은 원칙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런데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쌓다'는 '쌓+고[싸코]'에서 거센소리되기, '쌓+아[싸아]'에서 'ㅎ' 탈락, '쌓+는[싼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더라도 이들 음운 변동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날다'의 경우에는 '날+고[날고]', '날+아[나라]', '날+니[나니]'로 활용하는데, 'ㄹ' 탈락이 일어날 때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된다.

[A] 이제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어간 말 모음이 '오/우'이면 반모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나오+아[나와]'는 ㉠어간 말 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쏘+아'가 음절이 줄어 '쏴'가 될 때에도 발견된다. 둘째, 어간 말 모음이 '이'이면 ㉡어간 말 모음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견디+어'의 음절이 줄어 '견뎌'가 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견디+어[견디어]'는 '[견디여]'처럼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러나 'ㅅ'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밥을) 짓+어[지어]'처럼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어간 말 모음이 '아/어'이면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일례로 '사다'의 활용형인 '사+아[사]'에서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넷째, 어간 말 모음이 '으'이면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다. 이는 '쓰다'의 활용형인 '쓰+어[써]'에서 확인된다. 위의 경우들에서, 'j'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넷째' 경우와 관련하여, 어간 말이 '르'일 때 '으' 탈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르' 불규칙, '러' 불규칙 활용 용언에서 그러하다. 가령 '쓰다'처럼 활용하는 '치르다'와 달리, '지르다'는 어간이 '질ㄹ'로 바뀌어 '질러'로, '(정상에) 이르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로 활용한다. 이 두 활용도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용언이 불규칙 활용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②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③ '(문제를) 푸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본떠'는 '닳아서'와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⑤ '(정상에) 이르다'와 '(주의 사항을) 이르다'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6. 다음은 학생이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A]를 요약한 것이다.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	활용 사례
㉠	나오 + 아 → 나와
㉡	견디 + 어 → 견디어 → 견뎌
㉢	견디 + 어 → 견디어[견디어/견디여]
㉣	사 + 아 → 사
㉤	쓰 + 어 → 써

※주의
짓 + 어
↓
지어
[지어/~~지여~~]

① '(다리를) 꽈서', '(꽃을) 봐서'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② '(회사에) 다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③ '(어려움을)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④ '(잘못을) 나무라서'는 '(유행을) 따라서'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⑤ '(김치를) 담가', '(돈을) 모아'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선생님: 오늘은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시 문장에서 다음의 ㉠~㉢이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제시 문장	수행 결과
①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왔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 두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실'이라는 점은 같지만 두 관형사절의 성격은 다르다.

(가)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는 '사실'이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의 주어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나)는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가 '사실'의 내용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① ㉠: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② ㉠: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
③ ㉡: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④ ㉡: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⑤ ㉡: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39. 다음은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의 사용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는 '을/를' 외에 '올/롤'도 있었어요. 체언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올/을'이, 받침이 없으면 '롤/를'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진 모음 조화에 따라,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ㅏ, ㅑ, ㅗ, ㅛ, ㆍ)이면 '올/롤'이, 음성 모음(ㅓ, ㅕ, ㅜ, ㅠ, ㅡ)이면 '을/를'이 결합했어요.

학 생: 그럼 끝음절 모음이 중성 모음 'ㅣ'인 체언은 어떤 형태의 목적격 조사와 결합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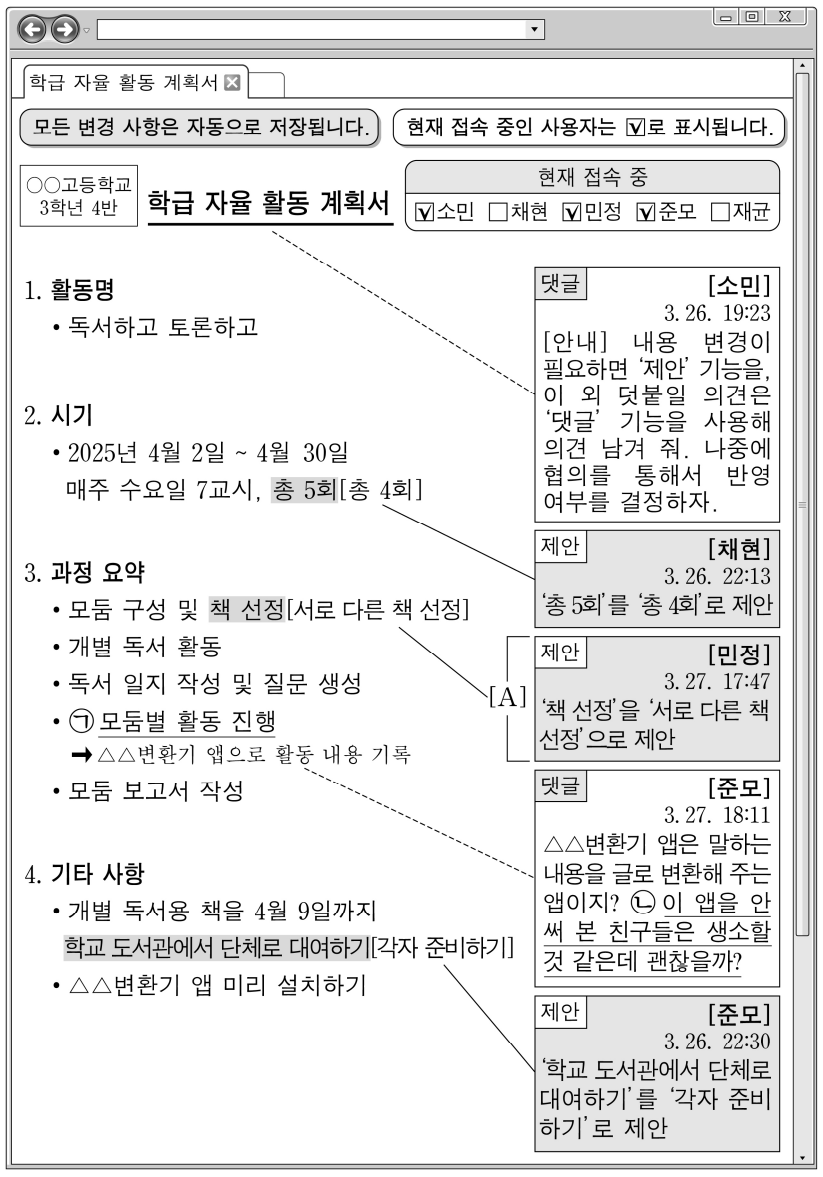
선생님: 그 경우에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받침의 유무로만 조사가 결정되면서 '을/를'은 물론 '올/롤'과도 결합할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끝음절 모음이 'ㅐ, ㅔ'인 체언도 중성 모음 'ㅣ'인 체언과 마찬가지로 받침 유무에 따라서만 조사가 결합됐다는 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맞게 다음 중세 국어 단어들을 ㉠~㉣에 넣어 보세요.

중세 국어 단어	목적격 조사	결합 단어
둡게(덮개), 바롤(바다), 염규(부추), 아바님(아버님), 꿈(꿈), 벼로(벼루)	올	㉠
	롤	㉡
	을	㉢
	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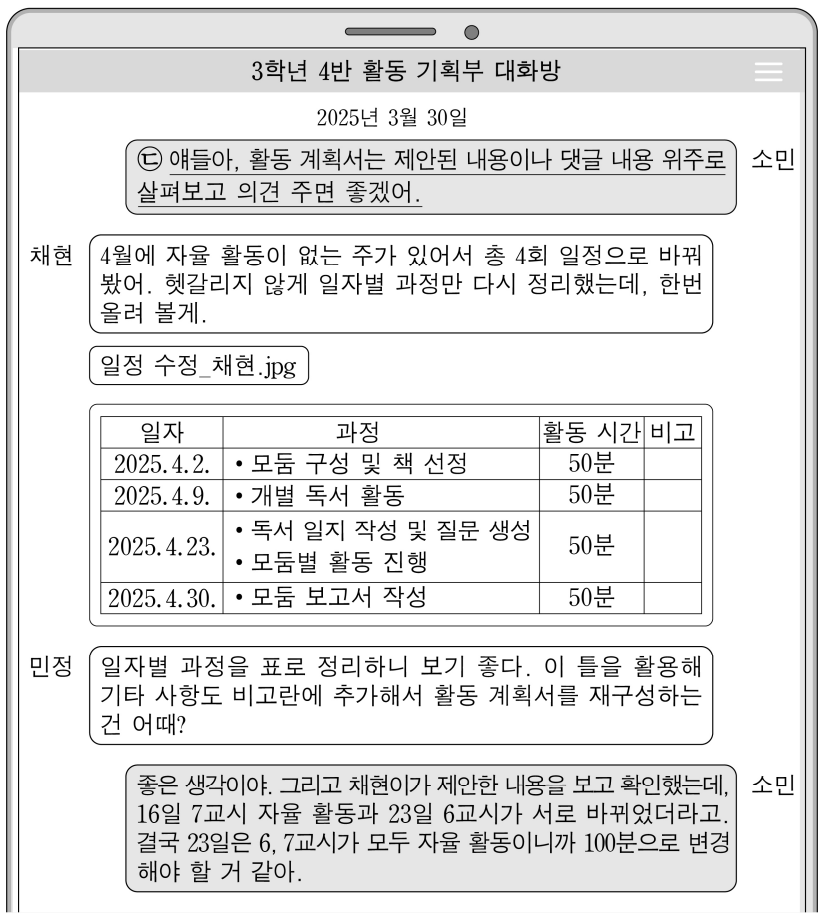
① ㉠에 들어갈 단어는 '바롤'뿐이다.
② ㉡에 들어갈 단어는 '염규', '벼로'이다.
③ ㉢에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 '꿈'이다.
④ ㉣에 들어갈 단어는 '둡게'뿐이다.
⑤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이다.

[40~43] (가)는 학급 활동 기획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공동 문서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민정: 나는 준모의 제안 내용을 보고 학교 도서관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책이 많지 않아 단체 대여는 힘들겠더라고. 개별 독서용 책은 각자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해.

소민: 좋아. 참, 준모야. ㉣ 네가 활동 계획서에 쓴 댓글 봤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

준모: 변환기 앱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 같아서 제대로 활용될지 걱정돼서 그랬지.

재균: △△변환기 앱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화면의 '+' 버튼을 누르면 녹음된다는 걸 몰라서 헤맸었어.

민정: 나도 '종료' 버튼을 누르면 녹음 내용이 자동으로 글로 변환되는 걸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정보들이 담긴 앱 사용법을 찾아 링크를 걸어 두는 게 좋을 듯해.

소민: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으로 모둠 구성 및 책 선정의 순서는 어떻게 할까?

준모: 같은 책을 선정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정하거나, 모둠을 정하고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듯해.

채현: 모둠이 정해지고 책을 선정하는 게 활동을 진행하기에 편할 거 같아.

준모:

그리고 우리 활동은 책 읽고 다양한 의견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활동명에 토론을 넣어도 될까?

소민: 준모 말처럼, 토론 형식을 갖추기보다 소통하면서 생각을 나누려고 이 활동을 기획한 거니까 활동명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

소민: 끝으로 민정이가 제안한 내용 논의하자!

재균: 서로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건, 모둠마다 각각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뜻이지?

채현: 그러니까 한 모둠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거고, 다른 모둠이 선정한 책은 읽을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소민: 그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공유할 때도 다른 모둠 내용에 더 흥미가 생길 거 같아.

채현: 혹시 두 모둠까지는 같은 책을 선정할 수 있게 하면 어때? 다른 모둠이 선정해서 보고 싶은 책을 못 보면 아쉬울 듯해.

민정: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준모: 그렇게 하면 책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고, 책 선택권도 어느 정도 보장될 거 같아.

소민: 알겠어.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반영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를 활용해 활동 계획서를 재구성해 볼게. ㉤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우리가 만든 활동 계획서 링크를 보내 드릴게.

40. (가),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제안'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공동 문서 내용에 대한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 있군.
② (가)에서는 체크 표시를 통해 사용자가 공동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다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나)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의견에 반응하고 있군.
④ (나)에서는 자료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⑤ (나)에서는 자동 저장됨을 알려 주는 표지를 통해 사용자가 정보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군.

41. (가)의 [A]에 대하여 (나)의 학생들이 보인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균과 채현의 공통된 이해에 소민이 동의하였다.
② 재균이 제기한 의문을 채현과 민정이 해소하였다.
③ 재균과 소민의 의견을 채현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④ 재균의 잘못된 이해가 채현과 민정의 반응에 의해 교정되었다.
⑤ 채현이 언급한 자신의 최근 경험에 민정과 준모 모두 공감적 태도로 반응하였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명사 '진행'으로 끝나는 형식을 통해, 활동이 모둠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 지시 관형사 '이'를 통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앞 문장에 제시된 △△변환기 앱임을 가리키고 있다.
③ ㉢: 보조사 '는'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활동 계획서가 문장의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 형용사 '그렇다'를 통해, 준모가 제시한 모둠 활동 기록 방법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다.
⑤ ㉤: 보조 동사 '드리다'를 통해, 링크를 받게 되는 담임 선생님을 소민이 높여서 표현하고 있다.

43. (나)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가)의 내용이 재구성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

모든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는 ☑로 표시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4반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

현재 접속 중: ☑소민 ☐채현 ☐민정 ☐준모 ☐재균

1. 활동명: 독서하고 대화하고
2.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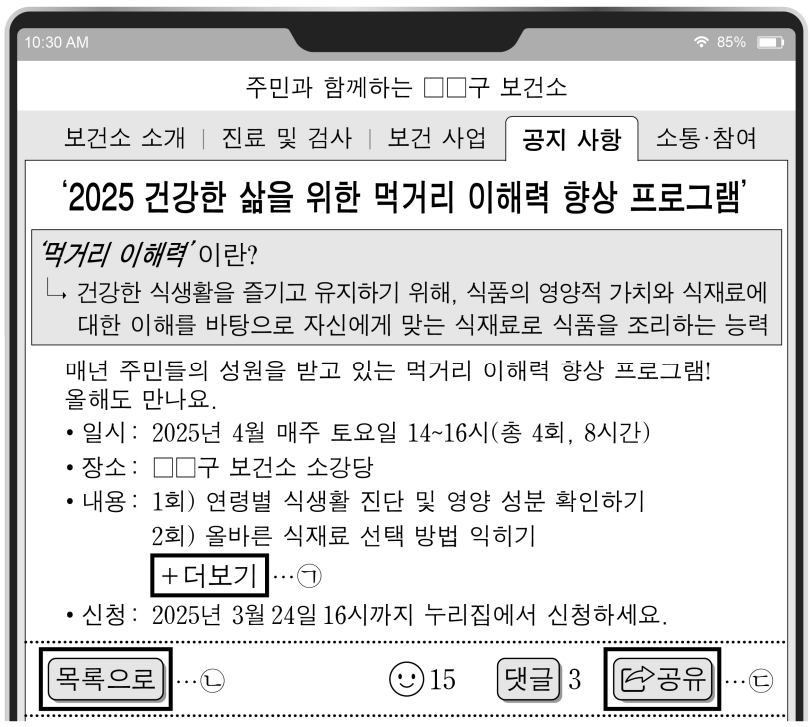
일자	과정	활동 시간	비고
2025.4.2.	• 모둠 구성 및 책 선정	50분	▶모둠 구성 후 책 선정 ▶같은 책 두 모둠까지 선택 가능
2025.4.9.	• 개별 독서 활동	50분	▶각자 책 준비하기
2025.4.23.	• 독서 일지 작성 및 질문 생성 • 모둠별 활동 진행 (△△변환기 앱으로 활동 내용 기록)	100분	▶△△변환기 앱 사용법 클릭
2025.4.30.	• 모둠 보고서 작성	50분	

① 활동명은 활동 기간을 고려한, 준모와 소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독서하고 토론하고'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되었다.
② 2025년 4월 23일의 활동 시간은 학교의 계획된 일정을 고려한 소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50분'에서 '100분'으로 수정되었다.
③ △△변환기 앱 사용법은 자신의 사용 경험을 고려한, 재균과 민정의 대화를 반영하여 비고란에 하이퍼링크로 추가되었다.
④ 모둠 구성과 책 선정 간 선후 관계의 결정은 활동 진행의 편의성을 고려한 채현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고란에 추가되었다.
⑤ 책을 단체 대여할지 각자 준비할지에 대한 결정은 학교 도서관 보유 도서를 고려한 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고란에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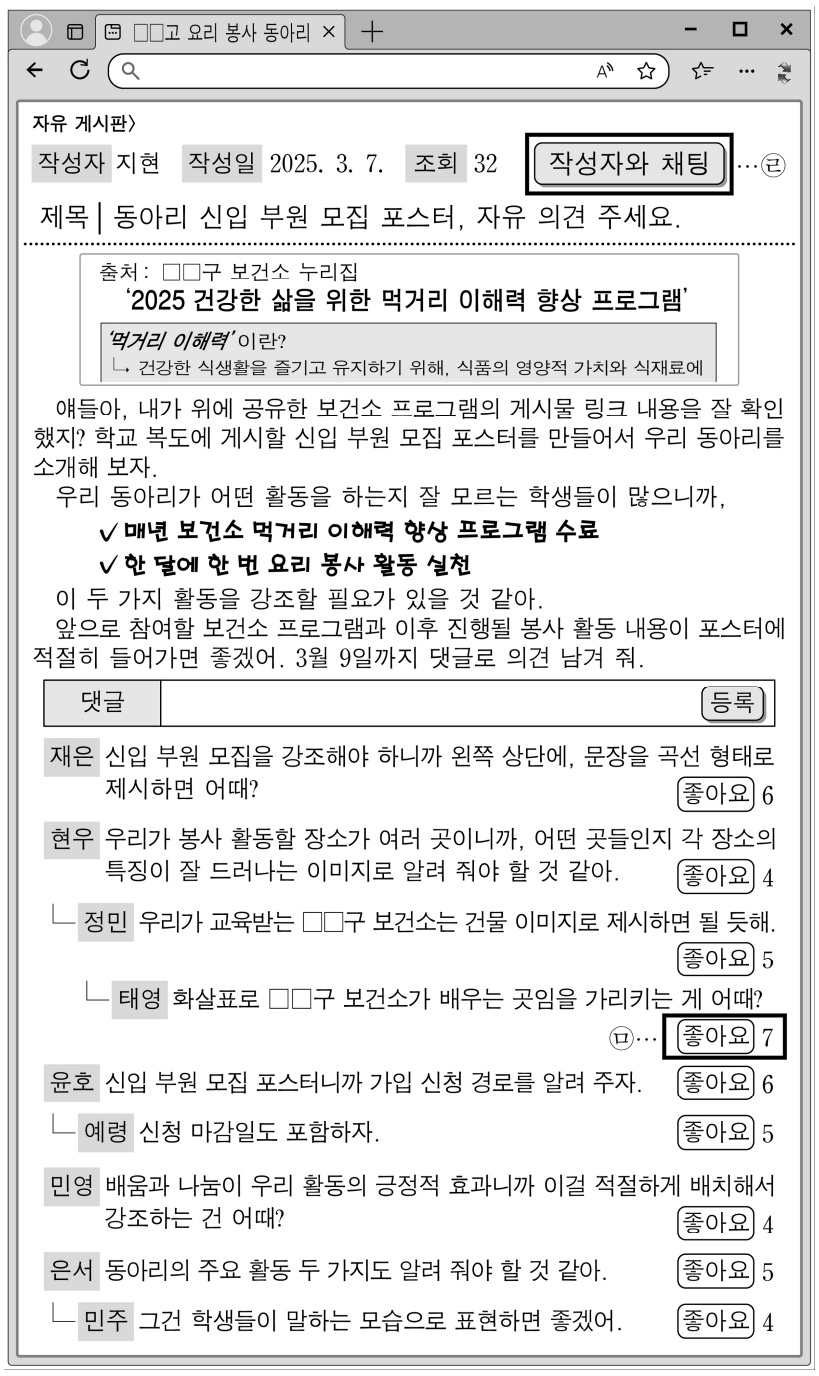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구 보건소 앱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동아리 학생들의 온라인 카페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노출량 조절과 관련 있는 ㉠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 항목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상위 항목으로의 이동과 관련 있는 ㉡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구 보건소'에서 게시하는 공지 사항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의 연결과 관련 있는 ㉢을 활용하여,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정보를 동아리 구성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④ 작성자와의 온라인 대화와 관련 있는 ㉣을 활용하여, 신입 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지현'과 대화할 수 있다.
⑤ 수용자의 반응 표시와 관련 있는 ㉤을 활용하여, 화살표를 이용해 장소를 지시하자는 '태영'의 의견에 긍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5. 다음은 (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결과물이다. 포스터의 정보 제시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입 부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 물결 모양으로 배치한 문장을 제시하였다.
② 정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봉사 활동 장소를 안내하기 위해 봉사할 장소들을 구별하여 시각화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③ 윤호와 예령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아리 가입 신청 마감일 및 신청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날짜와 QR 코드를 제시하였다.
④ 민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배움과 나눔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가운데에 관련 문구를 배치하였다.
⑤ 은서와 민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아리의 핵심 활동 두 가지를 알려 주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듯한 말풍선을 배치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